

全體主義의 哲學的 解明

『이즘』에서 『學』으로의 對立 過程(下)

朴致祐

全體主義의 諸相

部分과 全體와의 關係의 問題 이것은 本質的으로 哲學의 問題이다. 따라서 全體主義는 적어도 이 問題를 取扱하는 □哲學에 助力을 求하지 안할 수 없다. 그러면 哲學은 어떻게 이 問題를 풀어 왔는가? 또 풀려고 하는가? 可能 方法 中の 하나로서 于先形式論理가 있다. 그러나 形式論理 思考에 대해서는 問題의 解決을 期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存在를 『現實 存在』와 『理念 存在』의 두 갈래로 나눈다면 形式 論理는 理念 存在의 論理일수는 잇서도 玄室存在의 論理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論理의 □□에 잇서서도 그리하거니와 아직도 이 點에서는 다를배없다. 이 論理는 元來부터가 感□的 個物을 取扱하는 論理가 아니라, 個物『이데-』즉 理念 存在만을 對象으로 하는 論理이였고, 아직도 本質的으로 그리하기 때문이다. 形式 論理가 이러케 現實 存在의 論理가 아닌 以上 그것은 民族이라든지 歷史, 社會, 國家라든지 더구나 싸호고 사랑하고 일하고 시기하는 『사려 잇는 現實 存在』 人間의 論理일 수는 더욱 업는 노릇이다. 『甲은 非甲이 아니다.』라는 理念의 世界에서만 通用이 될 苛酷한 矛盾律을 根本前提로 삼는 그러한 論理 인지라 이러한 論理를 □□하는限 個人과 民族, 個人과 個人의 對立 統一을 企圖해 맞대자 結局은 變년이 中世의 □□□□과 가튼 부질 업는 是非에 떨어지게 될 다름일 것이다. 이 가튼 意味에서 形式論理는 이 問題에 關한限 完全히 無力이다. □□한 現代의 全體主義가 이처럼 無力한 이 論理를 빌려 갈리는 업다라고 하면 좀 더 다른 論理는 업슬까? 있다. 辨證法的 論理가 그것이다. 玄室 存在의 運動의 論理라는 辨證法이 그것이다. 하나 이 論理는 처음부터 現代의 全體主義로서는 □□할 理가 업다. 왜냐하면 辨證法은 否定의 論理-對立과 □□의 論理-運動과 發展의 論理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同胞 相□□□思想의 □□이야 말로 現代全體主義의 最後의 關역이 아닌가. 로-젠

베르그와 슈팡은 勿論 더구나 헤-겔主義者로 □□하는 크로-너-그록크너-에 이르기까지 現代全體主義者의 거의 全部가 約束이나 한드시 辨證法□□의 깃발을 떠메고 나서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타고하면 다른 또 좀더 妙한 論理는 업슬까? 있다. 한 개의 □□□에 잇섯는 『攸體』는 괴롭다고 함부로 不平을 중얼거리서는 아니 된다. 눈(眼)이 主人과 싸흐고 빠져 다러난다면 그는 卽 □에서 죽어야 하며 손이 발과 싸워서 亡해야만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個人은 各自의 利益을 돌보고 잇슬 □□가 아니다. 아니 한 개의 有機體에 잇서서 『個體의 利益』이란 것은 처음부터 잇슬 수 조차 업는 한 개 □□에 지나지 안는다. 個人은 처음부터 民族 또는 國家라는 한 개의 全體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오. 그러케 함으로서만 살수가 잇는 것이다. 이것이 所謂 有機體的 論理의 核心이다. 하지만 여게도 如前히 □□이 잇지 안흘까? 웨? 다름 아니다. 우선 個人은 果然 손이 몸집에 붙터 잇듯 그러케 民族또는 國家에 붙터 잇는 것일까? 둘째로 가령 그러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論法에서 『民族』 우에는 『人類』라는 보담 더 큰 몸명이가 잇겠고, 『國家』 우에는 『世界』라는 보담 더 큰 『全體』가 잇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現代全體主義에 잇서서는 이 論法은 □□이다. 『人類』가 아니라 民族(또는 □□)이 그리고 『民族』만이 거게서는 最高絶對의 全體者이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民族』은 거게서는 『알파』며 『오메가』다. 民族 우에다가 人類를, 國家우에다가 世界를 두려는 思想은 全體主義와는 □□인, 아니 오히려 가장□□한 □□인 □□主義 『코스모포리타니즘』의 理論인 것이다. 여게서 現代의 全體主義는 『피의 原理』라는 새로운 原理를 내세워서 이것을 가지고서 從來의 □□의 有機體說(合理的有機體說)을 神秘的(非合理的)인 有機體說로 뜨더고칠 必要가 잇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現代 全體主義는 從來의 有機體說에서 『□□思想』 『□□觀念』과 가튼 點만을 □□하고, 民族을 넘어서 人類로 □리려는 □□主義 그 所謂 『知性的□□』은 신작 버리듯 버리는 것이다. 이 □□을 爲하여서는 『피』의 倫理만침 조흔 □□은 업다. 『피』는 한 개의 □□인 때문이다. 知性的의 介入을 許치 안는지 실로 『二十世紀의 □□』인 때문이다.

사실 從來의 有機體說, 가령 스펜서-의 有機體說만 하더라도 □□□□時代의 □□으로 合理主義 탈을 벗지 못했섯었다. 社會를 有機體에 『비견』해서 說明은 하였스나, 『피』에 依해서 結合된 文學 그대로의 한 개 □□로서는 보지 안혔다 社會는 거게서는 有機體가 아니라 有機體의 單純한 『아나로지-』로서 說明된데 不過하였섯다. 이 點에서 現代 全體主義者들의 有機體說과는 根本적으로 □□가 다르다. 全體主義에잇서서는 이래서는 아니된다. 『全

體』는 『民族』을 넘어서는 아니되기 때 문이다. 現代 全體主義의 有機體說이 非合理主義的 神秘主義的인 □□有機體說의 形態를 取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가튼 非合理主義的 有機體說(□□有機體說)은 히틀러의 獨裁에는 『니체』 [니체]에 못지 안흔 □□히 조흔 辨證의 材料가 된다. 『피』를 □□로 하고 영켜 잇는 社會, 가령 家長制에 잇서는 家長이, 氏族制에 잇서서는 族長이, 『全體』가 가진 運命의 最高 實在者가 되어야한다.

以上으로써 現在 全體主義는 (一) 웨 그러케도 辨證法을 拒否하는가. (二) 웨 有機體說을 採用하는가. (三) 採用은 하되 웨 合理主義的인 要素는 빼여 버리고 非合理主義的인 □□有機體說을 固執하는가. 等等의 點을 中心으로 現代全體主義 『이즘』의 性格을 □□하나마(적어도 哲學的으로는)解明해 본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當附하고 시픈 것은 內地哲學界의 現況이다. 部分과 全體와의 關係에 對해서 가장□□하고 □□한 한 개의 哲學을 이루고 잇는것은 學者가 보는□□ 안에서는 □□□氏이나 氏의 哲學은 □□□□이 □□의 解決의 열쇠를 辨證法-에 求하고 잇는 듯한데 그러타면 辨證法을 如何히改造해 覓뎌자 核心인 『□□』 『對立』, 따라서 『□□』의 思想을 果然 어뎌케□□해 갈지 興味잇는 問題이다. 또 이와 反對로 □□□□氏는 所謂 『全體의 立場』을 □□하여 辨證法을 □□하나 『結合』의 □□를 『變』에서 求하고 잇스니 이러한 氏의 『變』의 哲學이 果然 언제까지나 □□을 固執할 수 잇슬까가 問題이다. 이 두 사람과는 훨씬 달리 和辻哲□氏]의 『風土□□』 『祖國□□』에는 조홉상시프나 民族의 對外的인 □□과 發展을 果然 어뎌케 保證해줄까. 이런 여러 가지 點이 눈에 걸려 日本的인 全體主義 哲學은 아직은□□히 哲學的으로는 □□되어 잇지 안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좀 더 손을 대고 시픈 만흔 問題를 남기면서-

(二 月二十二日)